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Donghak Peasant Revolution Foundation

보도자료

2024년 8월 8일 배포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붙임자료 1쪽

담당부서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

기획운영부장최두현(063-530-9410)/담당자신아영(063-530-9414)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 유산 등재 기념

국회 특별전시 '100년을 숨겨온 기록, 세계의 기억이 되다'

- 인권, 평등, 평화의 혁명정신 현재에도 필요

○ 202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소개하는 특별전시가 오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전북자치도, 윤준병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특별전시는 '100년을 숨겨온 기록, 세계의 기억이 되다'라는 주제로 세계기록유산 등재 과정과 동학농민혁명 명칭 변천사를 소개하고 있다.

○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은 2023년 5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등과 같이 우리나라 18번째 세계기록 유산이 되어 세계에 영향력을 미친 인류의 기록으로 인정받았다.

○ 이번 전시에는 1994년 100주년이 되며 '혁명'으로 제 이름을 찾기까지 숨겨두고 외부로 드러내지 못했던 혁명군의 편지와 동학농민혁명의 평등, 평화, 인권의 정신을 기리는 각종 영상 기록물, 예술작품 등을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 볼 수 있다.

○ 개막식은 1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린다. 개막식에는 정동영 의원, 김윤덕 의원, 이원택 의원 등 전북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 전북자치도 김종훈 부지사와 전북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 박정규 상임위원장, 정읍시 이학수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 문제 해결에 노력 중인 국회 김준혁 의원, 박수현 의원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 신순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된 기록

물의 가치를 “동학농민혁명과 기록물은 인권과 평등을 지향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앞당긴 세계적 유산”임을 강조했다. 윤준병 의원은 국회 특별전시 의미를 “유네스코 등재로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평가와 의미가 분명해진 기록물을 국회에서 전시하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의 가치를 더욱 알리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 한편 이튿날인 13일에는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들은 국권침탈에 대해 일어난 항일운동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토론회도 열린다. 윤준병 의원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주최하고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동학농민혁명 2차 참여자 서훈연대 등이 공동 주관하는 토론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 이날 토론회에는 유바다 고려대 교수, 남경국 헌법연구소장, 박용규 서훈연대 대표의 주제 발표와 동학농민혁명 연구자와 문체부, 국가보훈부 관계자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주최 기관을 대표해 윤준병 의원은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명백하게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서 비롯된 것임이 여러 가지 기록에서 확인된 만큼 국권침탈 시점을 1894년 6월로 바로잡아 동학농민군에게 그에 맞는 예우와 서훈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첨부 : 국회 특별전 ‘전시 구성(안)’, ‘전시품 이미지(일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기획운영부장 최두현(☎ 063-530-9410), 기획운영부 신아영(☎ 063-530-94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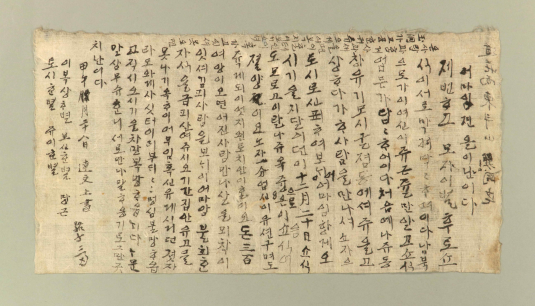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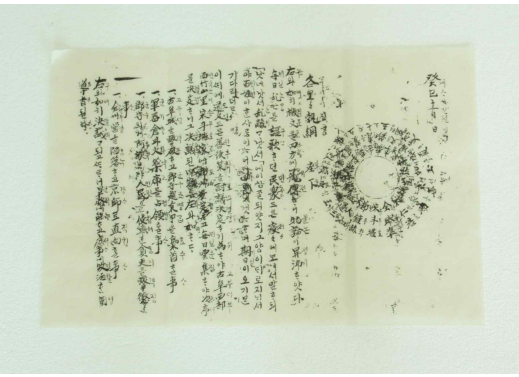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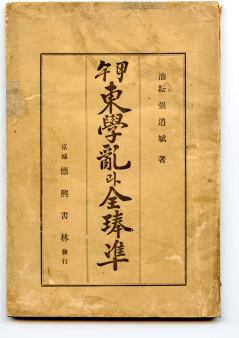
(붙임 1)

□ 전시 구성(안)

구분	제목 및 주요 내용	세부 내용 / 자료	비고
인트로	전시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의 기억으로 인정받게 된 동학농민혁명의 가치와 의의 ○ 세계를 뒤덮은 대한민국 문화 열풍에 이어 K-기록물의 탄생, 세계의 기억으로 자리매김 	
파트 1	동학난에서 동학농민혁명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 명칭의 변화에 나타난 사회 인식의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 정부, 천도교, 학자, 일반 등 다르게 나타남 ① 1895~1960: 동학란, 동비의 난 ② 1961~1980: 동학운동, 동학혁명, 동학농민운동 ③ 1981~현재: 동학농민혁명 * 기타: 갑오농민전쟁, 동학농민전쟁 ○ 관, 민 각자 또는 함께 주도한 기념사업 활동 	도서, 신문, 영상, 사진 *연표 형태
파트 2	세계가 주목한 동학농민혁명의 의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서 ○ 세계기록유산 등재 유물 가운데 동학농민군의 의지와 혁명의 의의 등이 드러난 자료,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발통문, 무장포고문, 폐정개혁안 - 사대명의, 12기율 - 동학농민군의 구호 등 	유물, 패널
	185점 13,132면에 담긴 미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국의 역사와 기억을 넘어 세계가 기억하고 지켜야 할 모두의 역사임을 주요 단어를 통해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생, 공존, 평등, 인권, 소통, 협동, 존중, 정의 -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대(무장포고문) - 나라가 환란에 처하면 백성도 근심해야 한다네 (동학농민군 유광화의 편지) 	타이포_영문(추가)
파트 3	동학농민혁명 주제 예술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화가 박흥규 작품 	판화

(붙임 2)

□ 전시품 이미지[일부]

구분	제목	주요 내용 / 사진	비고
유물	 <p>한달문 편지</p>	<p>1894년 12월 28일 달문 상서이자 동학농민군 한달문이 옥중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한글 편지이다.</p> <p>동학농민군의 옥중 생활을 비롯한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동학농민혁명 당시 동학농민군이 직접 작성한 문서로 가치가 매우 크다.</p>	
유물	 <p>사발통문 沙鉢通文</p>	<p>고부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고부관아 습격을 계획하며 작성한 사발통문이다.</p> <p>사발통문은 조직화된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동학농민혁명의 가치를 확인해 주는 사료적 중요성을 가진다.</p>	
유물	 <p>갑오동학란과 전봉준(甲午東學亂과 全琫準) / 장도빈 / 1926</p>	<p>이 책은 동학과 동학농민혁명의 발생 배경, 전개 과정 그리고 실패의 원인과 의의 등에 대해 기록한 것으로, 1937년 치안상의 이유로 조선총독부에 의해 출판금지 되었다가 1945년 재간행 되었다.</p>	전시회 내부 상영작